

이통3사, 아이폰11 예판

국내 출고가 소폭 인상

이동통신3사는 오는 18일부터 애플의 5G 스마트폰인 아이폰11 시리즈에 대한 예약판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식 출시는 오는 25일이다.

아이폰11은 퍼플, 그린, 옐로, 블랙, 화이트, 레드 등 6가지 색상으로 △64기가바이트(GB) 모델 99만원 △128GB 모델 105만6000원 △256GB 모델은 118만8000원으로 출시된다.

아이폰11 프로와 아이폰11 프로 맥스는 골드,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미드나이트 그린 등 4가지 색상이다. 아이폰11 프로는 △64GB 137만5000원 △256GB 158만4000원 △512GB 183만7000원이며 가장 고가인 아이폰11 프로 맥스는 △64GB 152만9000원 △256GB 173만8000원 △512GB 모델 199만1000원이다.

아이폰11의 출고가 전작에 비해 소폭 인상돼 '역대급'으로 높은 출고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통3사는 각종 제휴카드 할인이나 단말교체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시행해 이용자의 구매 부담을 낮추는 방침이다.

먼저 SK텔레콤은 'T안심보상'을 통해 사용 중이던 아이폰을 반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할인이 더 늘어난다. 예를 들어 2년 전 기준인 아이폰8+(256GB) 반납 시 최대 52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KT는 아이폰11 슈퍼제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폰11을 24개월 사용 후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또 제휴카드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00만원 가량의 단말기 할인도 제공한다.

이밖에 애플의 무선이어폰 에어팟2 할인가 등 예약가입자들을 위한 사은품도 제공한다.

다만 이번에 애플은 신제품의 가격을 전작과 같거나 오히려 낮췄는데, 국내에서는 애플 코리아가 신제품의 가격을 소폭 올려서 출고했다.

돼지 마릿수 역대 최고치 찍을 때 '돼지열병' 발생

통계청 '3분기 가축동향'...9월1일 기준 1171만3천마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올해 3분기(9월1일 기준) 돼지 마릿수가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처분 후인 10월 10일 기준으로는 그보다 약 2%가량 감소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71만3000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계청이 돼지 마릿수를 공표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최대치다. 또 전년 동기보다는 7만2000마리(0.6%) 증가하고 전분기보다는 39만6000마리(3.5%)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9월1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은 9월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 발병했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살처분이 한창 진행된 10월10일 기준으로는 3분기 마릿수의 약 2%에 해당하는 약21만마리가 도살처분됐다. 이는 경기도에서 돼지를 22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258개를 전수조사하고 그 이하 규모 농가 198개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통계청 관계자는 "돼지 살처분 마릿수는 경기도 내에서는 약10% 정도이고 전국 기준으로는 약2%에 해당한다"며 "살처분이 경기도에 국한돼 아직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돼지는 원래 과잉공급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가격대도 급년들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한육우 역시 3분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23만4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6만6000마리(2.1%)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플러시 이상 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 소비가격이 높고 사육마릿수도 제일 높다"고 설명했다.

젖소 사육 마릿수는 3분기 40만3000마리로 전년 동기비 3000마리(0.9%)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유는 생산 총량 쿼터제가 있는데 이번에 젖소의 마리당 우유 생산량이 높아져 젖소 숫자는 줄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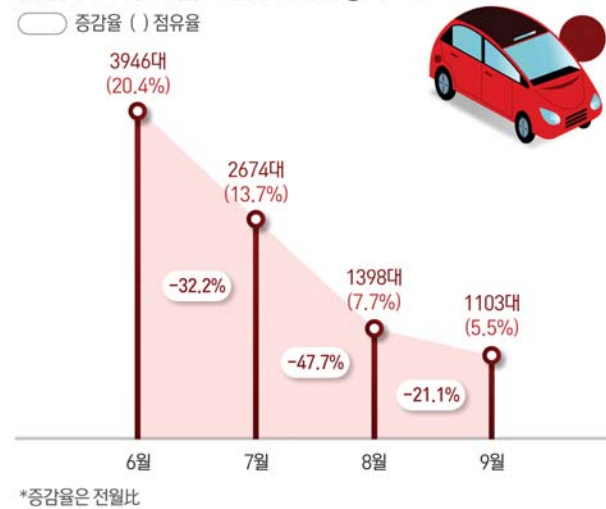
이외에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7089만5000마리로 전년 동기비 33만1000마리(0.5%) 줄었다. 육계 사육마릿수는 8853만 마리로 전년 동기비 525만2000마리(6.3%) 증가했다. 오리 사육마릿수는 969만4000마리로 전년 동기비 39만2000마리(3.9%) 줄었다.

뉴스1

9월 일본차 판매 '급감' 月 1000대 못 파는 시기 온다

지난달 판매량 1103대...수입규제 조치 전 4분의 1 수준

일본차 5개 브랜드 합산 판매량 추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지 3개월째로 접어든 9월, 일본 브랜드 자동차 판매가 현격히 줄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9월 자동차산업 동향(잠정)을 보면, 렉서스·토요타·혼다·인피니티·닛산 등 일본차 5개 브랜드의 9월 판매량은 1103대로 전년 같은 달 대비 59.8% 급감했다.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6월 3946대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수출규제 시행 이후인 7월(2674대), 8월(1398대)과 비교해도 감소

율 하락폭은 상당하다. 브랜드별로 혼다의 감소율이 -82.2%(166대)로 가장 컸다. 이어 인피니티 -69.2%(48대), 닛산 -68.0%(46대), 토요타 -61.9%(374대), 렉서스 -49.8%(469대) 순이었다.

지난 6월 기준 일본차는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세를 과시했지만 불매운동 여파로 지난달 5%대로 급락했다. 흐름상 조만간 월 1000대 이하로 판매 대수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9월부터 바뀐 8자리 번호판 제도 역시 일본차 불매에 영향을 주고 있다. 8자리 번호판을 단 일본차라면 불매운동 중에 구매할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종의 낙인 효과 탓에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한일 관계와 불매운동 분위기를 보면 일본차 판매량은 월 1000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노인일자리' 늘렸다고 좋아할 때 아니다...40대 취업난 아프게 봐야

"고용 양적·질적 개선됐다"는 정부...지속 가능성 없어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 늘어나는 등 개선된 고용지표가 발표됐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고용시장이 양적·질적 측면에서도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정부도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낙관적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지표는 우리 경제에서 투자와 소비가 선순환하는 가운데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일종의 '경기 판단 지표'로 여겨지는데, 현재의 고용통계는 그같은 성격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복지' 위해 만든 노인일자리 수, '경기 개선' 근거로 이용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33만50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만명은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집중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8만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보다도 많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정책에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 이같은 '복지사업'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공공일자리 개수가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인다는 것이다. 통상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가해지는 비판은 그 사업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이같은 기반적 통계 사용을 향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일 자리를 만들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 자체를 누가 뭐라하겠나"라며 "복지사업으로 만든 일자리 수를 가지고 '고용 시장이 개선됐다'고 말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조업 빠지고 서비스업 오르고... '저부가가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월의 전년 동월비 취업자 증가량 중 절반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또 나머지 중 절반 수준인 7만9000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관이 있고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올해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었다.

반대로 취업자 감소가 가장 큰 폭으로 이뤄진 분야는 제조업(11만1000명 감소)이었다. 결국 기반산업 취업자 수가 빠져나간 부분을 저부가가치 취업자 증가 수로 메꾸면서 전체적 증가세를 이끌아내 모양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이런 게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40대, 특히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으니 질적인 면에서는 고용을 개선할 여지는 많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숙박업·보건서비스업 쪽은 고부가가치가 아니다. 특히 숙박 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 흐름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안정성과 질적 측면에서 아주 좋은 일자리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